

2019 새 설계

구 충 곤 화순군수

“백신·생물의약품 산업 선도 ‘신경제 지도’ 밑그림 완성”



“성장 잠재력을 키웠던 민선 6기의 성과를 이어 받아 군민 누구나 평균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군민 모두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 1번지 화순’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내 삶을 책임지는 완전복지와 백신·생물의약품이 선도하는 신경제,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촌, 맛있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년 희망도시, 균형 있는 지역 개발과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등 6대 균정 방향을 제시했다.

구 군수의 목표 중 하나는 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산업·도농 간 균형·상생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구 군수는 “백신·생물의약품과 첨단복합의료산업이 선도하는 ‘신(新)경제 지도’의 밑그림을 완성하겠다”며 “올해부터 화순이 주도하는 ‘생물의약품산업벨트’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유치

장애인복지관·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고대역사 정원·고인돌 캠핑장 조성

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국립 백신 면역치료 연구원을 유치하고 생물의약품 2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 백신-의료-생물의약품업을 연계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백신·생물의약품 기업 유치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촌·농업 실현도 구 군수의 발전 전략 중 하나다.

구 군수는 농민수당제를 비롯한 여성, 고령, 영세농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맞춤형 영농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작목 개발, 스마트 농업 육성, 유기농업과 6차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구 군수의 복지정책은 ‘내 삶을 책임지는 완전

복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는 “영·유아에서 고령층까지, 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농촌에서 도시까지 어느 한 나이·계층·성별·지역도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아동청소년·여성가족·고령 3대 친화도시 조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육아·교육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시책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전면 확대 시행,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출산·육아 등 원스톱 지원센터(엄마의 학교)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구 군수는 산재한 문화유산, 풍부한 산림자원을 연계해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1번지’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이를 위해 세계거석테마파크, 고대역사문화정원, 고인돌 캠핑장을 조성하고 동아시아 고인돌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특히 구 군수는 새롭게 조성할 화순 공립수목원과 공립 산림복지단지 등 산림자원, 문화유산, 첨단의료복합 기반, 농촌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주목한다.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아동청소년·여성가족·고령 3대 친화도시 조성
- ▲생물의약품산업벨트 구축,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마을혁신센터 설립, 주민자치·공동체 활성화
- ▲문화관광지원센터 설립, 관광객 5백만 시대 기반 마련
- ▲농민수당제 시행, 농업 경쟁력 강화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청년 희망도시 조성
- ▲1000원 버스 도입과 100원 택시 확대 운영
- ▲첨단복합의료타운 기반조성, 생활SOC 확충

구 군수는 “문화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해 특색있는 관광콘텐츠와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며 “관광객 500만 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군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행복지수를 높여겠다”며 “깊이있게 군민과 소통하면서 ‘더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낭만향구 맛집’ 지정하고 음식거리 조성 ‘맛의 도시 목포’ 실현 다양한 사업 추진

목포시가 ‘맛의 도시 목포’ 실현을 위해 음식거리 조성 및 맛집 코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지난 10일 ‘낭만향구 맛집 지정’을 위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식품관련 대학 교수 3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88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평가 대상 업소로 선정된 200여개 업소에 대해 28일까지 현장 평가를 실시한 이후 이달 31일 ‘낭만향구 맛집 지정’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시는 ‘맛의 도시 목포’ 실현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해 대대적인 위생업소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일반음식점 4036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영업주·위생단체 간담회, 자정 결의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 보건소는 이를 통해 ‘맛의 도시’ 원년 선포식 및 맛 집 선정 참여를 홍보하고, 친절·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목포

이미지 쇄신을 위한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맛집 선정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목포시 시책을 홍보해 소상공인과 소통 강화는 물론 ‘맛의 도시 목포’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목포시 지역상가 홈페이지 사진 DB 업데이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목포시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지역상가 홈페이지(목포 BIZ)의 사진 DB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먹거리 4598개, 숙박 370개, 서비스 1795개 등 총 1만 410개 업소로, 상호·소재지·전화번호·주요취급품목·지도정보 등이 담긴다. 사진은 10컷 내외로 수록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동계 전지훈련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이후 6000여명의 선수들이 목포에서 동계 전지훈련으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 중인 여중 축구팀.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12월 이후 1만 9000여명 찾아...목포시, 동계훈련 메카 부상

목포시가 동계 전지훈련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축구·육상·야구·수영 등 7개 종목 15개 팀 5964명의 동계 훈련 팀이 목포를 찾아 기량을 닦고 있고, 앞으로도 3개 종목 1만 3000명의 방문이 예상된다.

목포시는 올 겨울 전지훈련 팀 유치로 약 15억여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관광 비수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몫을 특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목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갖춘 목포국제축구센터, 필두로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훈련할 수 있는 실내육상 트레이닝장, 유달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영산호 카누장 등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목포시 체육체육과장은 “지자체들의 전

지훈련팀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만, 목포시만이 가진 강점을 적극 홍보해, 앞으로도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2018 전남 동계 전지훈련 유치 평가에서 유치인원, 해외 팀 유치 실적, 전지훈련 팀 인센티브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도비 보조금 2524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17년에도 도비 보조금 2470만원을 받는 등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화순군 기동포획단 운영

권역별 30명 포획단원 선발

화순군이 15일부터 ‘2019년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본격 운영한다.

화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기동포획단원 30명을 권역별로 선발했다.

군은 지난 11일 한이음문화스포츠센터에서 단원을 대상으로 기동포획단 운영 방식을 공유하고 총포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포획단이 활동한다.

화순군은 권역별 활동으로 포획단의 기동성을 높여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속을 태우는 군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동성 향상이 민원 신속 대응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며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 만큼 농작물 피해가 감소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있는 군민은 읍·면 사무소나 마을회관에 비치된 해당 권역의 포획단원 명단과 연락처를 보고 신고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눈 내리는 겨울

순창에서 즐겨보세요.